

해결책 없는 익산시 악취민원 행정

시, 원인 파악 어렵다는 입장 견지... 해결 의지 의구심 일어... 주민 불편만 가중돼

익산시가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가축분뇨와 비슷한 역겨운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등동·부송동 등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

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땀질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민원이 잇따르자 정현을 시장은 지난달 25일 악취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악취신고대상 시설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민원이 발생시 현장 확인을 거쳐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를 명백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하수시설과 산업단지, 축산농

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액비살포 등을 악취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악취의 경우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주관적 감각공해라는 사유를 들며 원인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해결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가 악취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던 8월까지 악취가 많이 저감돼 왔다"면서도 "최근 들어 악취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취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실에 대해 행정과의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와 공단지역, 축사, 액비 살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수시설의 경우 하수분류관을 설치하고 있고 산단지역 악취희석배수가 내년부터 75배에서 500배로 강화될 예정이어서 악취 저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천 인도교 '오목교' 정식 개통

한옥마을~무형유산원 이어줘 전주관광 외연 확대 기대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전주천 인도교(오목교)가 4일 정식 개통됐다.

오목교가 개통됨에 따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주천 너머인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서학동예술촌 등으로 이어져 전주관광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이날 전주한옥마을 완판본 문화관 야외마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목교 준공식을 가졌다.

길이 86m, 폭 4m 규모로 만들어진 오목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이

다. 국비 14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인도교 설치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시민공모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도교의 명칭을 인근에 있는 오목대의 이름을 따 '오목교'로 결정했다.

시는 오목교가 전주의 새로운 문화유산 탐방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서학동예술촌으로 연결되는 인근 남천교에 이어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유산 탐방관문인 오목교가 설치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기반도 갖추게 됐다. /김민근 기자



국제로타리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
전주시는 4일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시의회 의장, 김홍균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이화승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시지부 28개 클럽과 '2017-2018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나서

전주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시 산하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017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는 납세의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무인텔 금고 부수고 현금 절취한 40대 구속

무인텔 금고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4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4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무인텔 복도에 설치된 금고 2개를 망치로 손괴하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20만원

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랜기간 해당 무인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여성 BI(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유로아이템을 주기 위해 그랬다"며 "여성 BI가 별풍선을 주면 좋아해서 더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삼민 기자

지난해 마약류사범 19.3% 증가... 역대 최대

공급사범 24.7% 증가... 인터넷·SNS 이용해 마약류 거래 용이해져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 대비 19.3%가 증가해 1만4,2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는 4일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41.8% 증가하고 공급사범이 24.7% 증가했다.

공급사범의 증가 이유로는 인터넷·SNS를 이용해 마약류 거래가 용이해

진 점이 꼽힌다. 채팅 앱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사범 16명 중 3명이 구속되고 129개 판매 사이트 차단, 불법판매 게시글이 781건이 삭제되는 등 마약류 공급에 SNS가 적극 사용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습득해 국내에서 제조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5년 대비 49.5%로 크게 증가했고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해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밀반입되던 필로폰이 65.3% 감소한 대신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필로폰양이 50% 증가해 주요 반입경로가 중국에서 동남아국가로 옮겨가면서 밀반입경로가 다변화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경찰청, 순찰팀장 워크숍 진행

전북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팀장 282명을 대상으로 관역별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현장초동조치 대응력 강화와 현장경찰의 주요 보직인 순찰팀장의 바람직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112신고출동 처리과정과 여성·아동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처리 중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송승현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체도를 적극 시행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완산경찰, 경찰개혁·기강 확립' 특강

완산경찰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경찰개혁 및 경찰기강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서장이 직접 특강을 진행해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행위에 대해 신속수사, 무관용 원칙, 성

과금 지급제외 등을 교육했다.

또한 비위 사전 예방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일제 정비, 부서별 빈발비위에 대한 특화 대책 마련, 책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토대로 자정노력 강화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